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로 알려주세요.

## “임마누엘 은혜 충만하길” 세기총 성탄절 메시지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세기총·대표회장 심평중 목사)는 13일 성탄절 메시지를 내고, 임마누엘의 역사를 소망했다.

세기총은 먼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은총과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750만 해외동포를 비롯하여 모든 한국인 기독교공동체와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한다.” 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성탄절도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어둠에 물린 깊은 밤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위드코로나’를 시행할 만큼 안정되는가 싶었는데 이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인 오미크론으로 인해 전 세계가 다시 두려움과 위기에 휩싸이고 있다.”라며 “첫 번 크리스마스가 그러했듯이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임하신 성육신하신 그 사랑과 위로를 기억하며, 상처와 소외로 괴로워하는 이웃과 함께 마음의 손을 잡는, 임마누엘의 성탄절이 되어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라고 밝혔다.

세기총은 또 “그분(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새로이 가슴에 새기는 날이 성탄절이며, 오직 주님만이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운영하시고 세우시는 분”이라면서 “하나님에게는 결코 좌절과 실패가 없다. 코로나19의 현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리스천이라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믿기에 세상의 어떤 절망도 사라지게 될 것을 믿는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전했다.

세기총은 마지막으로 “2021년 성탄의 계절,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다.”라며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빛이 되고, 지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따뜻한 손길이 되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50만 동포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한다.” 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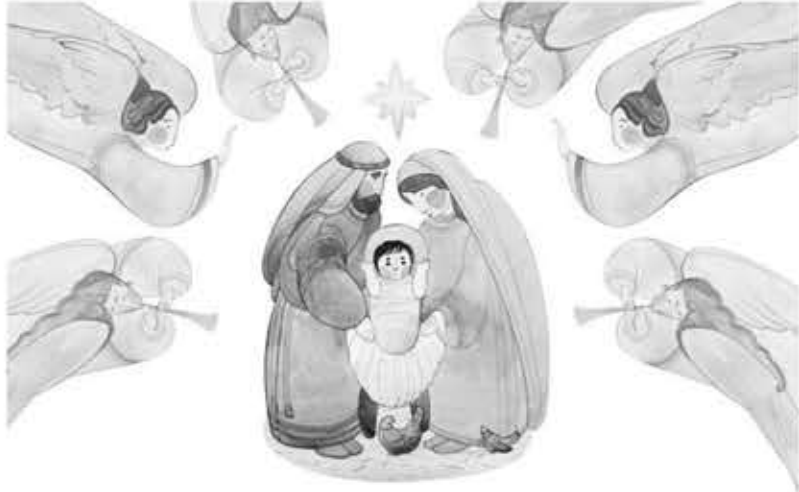


## 성탄에 복 받는 가정(누가복음 2:1-14)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 옛날에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성탄 트리를 만들고 연극을 준비하며 뛰어다니던 참으로 행복한 추억들을 회상하며 동심을 돌아가게 됨을 느낍니다. 저는 이것이 성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의 기록을 보면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어린 아기를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homeless-people이 노숙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상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성탄의 은총을 입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온 세계 가정의 명절인 성탄절에 우리가 축복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우리의 가정에 평화의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축복의 가정이 된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성탄절의 평화의 왕이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될 때에 그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들의 가정 한 가운데 태어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탄생될 때에,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게 되며 행복을 누리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천의 삶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돈과 권력이 아무



리 많이 있어도 평화가 없이 다투기만 한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탄생될 때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2. 어린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된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Christ(그리스도) + mass(천주교의 미사)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탄 절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점성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는 예물을 들고 베들레헴에 찾아온 것은 예배를 하기 위함이었습니. 카스파라는 동방박사는 황금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는데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인간 소유의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벨과이어라는 동방박사는 사상과 영향력을 상징하는 유황을 드렸습니다. 발타진이라는 박사는 몰약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에, 어린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찬양하는 성탄, 예배하는 성탄이 바로 축복의 상징입니다.

3.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가정에 축복이 임한다. 성탄절은 홀로 지낼 수 없습니다. 혼자서 지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지내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 외로운 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홀로 지낼 수 없는 성탄절에 너그러운 마음,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성탄절에 선을 베풀고자 하는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에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축복을 받은 성탄에 평화의 왕을 우리 가정에 모시는 믿음이 있을 때에, 어린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있을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푸는 사람들의 가정에 성탄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 김선도 목사 -

#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 숨은그림찾기 정답